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택희 편집국장:조선근

각 지회 연달아 총회 개최

1년을 마감하며 새해계획

한해를 보내며 각 지회에서는 이제 1년간의 모든 일을 결산하는 총회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미 지난 주일에 권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회의 총회가 막이 올랐다. 또한 전도위원회 산하의 각 전도회에서 일제히 총회가 시작되어 다음 주간 안으로 다 마칠 예정이다. 각 지회 전도회 총회는 주로 회원의 집에서 모여 1년간 지내온 일을 나누며 친교하며 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을 선임하기도 했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는 1년 동안의 일들을 결산하고 새로운 인사로 인한 새조직과 함께 새해를 계획하는 일들이 한창 준비 중이다.

교회학교 사랑부 교사

중증장애인 수용시설, 창인원 방문

사랑부에서는 교사일동이 11월 6일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하는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을 방문하였다. 교사들은 원장의 안내를 받아 시설을 견학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방침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나누며 사랑부 교육에 많은 참고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중요함에 비추어 각 부서의 총회를 통해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결산하고 또 서로간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12월 10일(금) 교구위원회, 12월 19일(주일)에는 찬양위원회, 전도위원회 총회가, 26일(주일)에는 교육위원회와 안수집사회의 총회가 각각 있게 된다.

지난 주일 있었던 권사회 총회에서는 회장에 장영옥 권사, 제1지회장에 남수현 권사, 제2지회장에 박영업 권사, 제3지회장에 윤수원 권사, 제4지회장에 박갑례 권사, 서기에 박옥식 권사, 회계에 김순 권사가 선임됐다.

한편 동원에서는 수용된 원생을 위한 겨울내의 등 많은 위문품을 충현교회의 이름으로 기증받고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각 교구별
새신자 환영 및 연말모임

금주에 새신자 환영 및 연말모임을 갖는 교구는 다음과 같다.

- 제5교구 / 오늘 14:20 아멘홀
- 제6교구 / 오늘 14:10 할렐루야홀
- 제20교구 / 오늘 14:10 교육관 407호
- 제21교구 / 오늘 IV부예배 후 뽀얏홀
- 제4교구 / 7일(화) 18:30 만나홀
- 제19교구 / 9일(목) 18:30 만나홀



수화찬양제 제2회 사랑의 수화찬양제가 11월 28일(주일), 길빌리홀에서 모였다. 사랑의 수화찬양제로 모인 이날 청각장애자들이 부르는 수화찬양은 일반인들에게는 펍이나 생소하면 서도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이날 찬양제는 찬양과 함께 성인들의 성극 뮤지컬, 다함께 하는 수화찬양과 말씀 등으로 구성해 자축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촌의 굶주린 이웃에게 떡과 복음을”

12월 10일(금) 우리 봉사관 로비에서 모금활동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대전극동방송에서 생중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KFHD)는 “지구촌의 굶주린 이웃에게 떡과 복음”을 이라는 표어로 1989년에 설립되어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20여개국의 긴급식량 원조와 자립을 위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구호단체이다. 이 단체와 극동방송 공동으로 오는 12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 우리 봉사관 로비에서 모금 특별생방송을 실시해서, 기아현황을 알리고 그들을 위한 구호기금을 모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설명회, 저금통 전달식, 기아봉사단 활동 보고 및 훈련안내, 각종 자선행사, 드라마, 노래, 찬양, 강연, 연설, 작은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지게 된다. 이날의 모든 행사와 현장 인터뷰등은 극동방송, 대전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교우들은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교우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여 전 세계의 기아현황을 이해하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 이 사람을 만나보니 ◆

파라과이에
선교하러 가는
오경희·변용자 자매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여러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며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애쓰고 선교에 관한 비전을 키워오던 오경희(사진에서 오른쪽, 26세), 변용자(사진에서 왼쪽, 26세) 자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파라과이로 단기 선교사역을 떠난다. 이 자매들을 잠시 만나 보았다.

▷ 파라과이 선교 현황은?

▶ 총회에서 파송한 양창근 목사(박경주 사모)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도 아순시온에서 2.3 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 람바레라는 고장이 있는데 그곳에 생명센터교회를 설립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자양육을 중심으로해서 선교하며 양성된 제자가 지교회 설립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건축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그곳에서 할 일은?

▶ 양 선교사님 내외분만이 사역을 하고 있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청년사역을 담당해야 하고 찬양 선교 및 의료선교(변용자 자매는 침술을 익히고 있다)적 측면에서도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가게된 동기 및 진행과정은?

▶ 오래전부터 선교에 관한 생각을 해오

던 중 대학부 때부터 알던 양선교사님의 초청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12월 7일(화) 출국하게 됩니다.

▷ 파라과이에 대해?

▶ 남미의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와는 정반대에 있는 곳으로 카톨릭 국가입니다. 유명한 영화 '미션'의 배경이 파라과이입니다. 개신교는 0.4% 정도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 하고 싶은 말은?

▶ 진행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위원회에서도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회에 감사하다는 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친한 친구라는 두 자매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라고 한다. 자신들의 사역을 잘 끝내고 이를 계기로 다른 청년들이 이어서 단기 사역의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두 자매가 자기 생애에 귀한 경험을 하고 그런 일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형)

이 시간에는 불의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비유는 알레고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풍유, 우화, 또는 영해(靈解)라고도 번역을 하는 알레고리는 세부적인 조그마한 것들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것이 특징이고, 비유는 언제나 중요한 핵심을 비교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불의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굉장히 알레고리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비유의 내용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 5장 7절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두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소작으로 주고, 그곳에서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1년에 한번씩

와서 세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 종들, 아들 등 다섯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 소작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은 울타라도 치고, 망대도 만들고 또 그들이 필요한 비용도 지출하면서 포도원에서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확기에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를 내기는 커녕 어떤 종은 잡아서 죽이고, 어떤 종은 심히 매를 때리고, 어떤 종은 돌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갈 수는 없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 아들이 가게 되면 설마 나를 보고서라도 종들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 만약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인다면 결국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때야 말로 기회이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 이사야, 엘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 분마저도 그들은 그냥 두지를 않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포도원 농부 비유는 앞으로 있게 될 사건을 저들에게 미리 예시해주면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2. 주인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불의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만에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교회를 감당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33절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물을 두르고 거기 즙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물로 들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있는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즐락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포도원만 지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필요한 비용도 지출했고 포도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

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귀한 주의 종들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것도 허락해주시고, 귀한 예배당도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3. 본문이 주는 교훈

충현강단



불의한 포도원 농부 (마 21:33-46)



신 성 중

<목사·당회장>

첫째로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의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무리하게 두 달란트, 세 달란트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의 열매만 맺어서는 안됩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꼭 다섯 달란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각 받은 것이 다르지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바쳐야 합니다. 만약에 바치지 못한다면 본문에 있는 농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있음을 교훈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가만히 두면 점점 세속화 되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야 그 자리에 있거나 겨우 조금 올라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 농부를 신뢰하고 그에게 그 농장을, 포도원을 맡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귀한 포도원을, 충현교회를, 이 민족의 운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셋째로 주인의 인내에

도 한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봄, 여름, 가을을 참고 참았습니다. 마침내 한 해가 다 지난 다음에 주인은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해만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하면서 사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수십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해야 합니다. 지금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만 은혜받고, 우리만 기도하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4. 결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감당 못한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리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맺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청지기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특혜를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다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영적인 배신이고, 배은망덕이고,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경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함당치 아니할 때는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열매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위에 떨어지면 저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산돌 되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돌에 떨어져서 내 자신이 깨어지면 우리는 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마침내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돌이 오히려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했습니다. 그런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기 전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되신 예수님에게 부딪쳐서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모든 무지가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져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깨어지고, 각각 받은 달란트를 감절로 남겨서 불의한 포도원 농부처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비결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어 하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먼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가을의 낙엽만 보고도 감격하고, 작은 선물을 받고도 기뻐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비가 와도 그 하늘을 뒤덮은 비구름 너머에는 항상 태양이 밝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글 / 신성중 목사

◆ 9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 교육위원회 ◆

교회학교 교육의 결산과 전망

홍 창 민

(목사, 교육위원회, 제21교구, 소망부 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그 자체의 독특한 사명을 가진다. 이 사명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추구해야 할 말씀 선포와 교육, 친교와 봉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것들은 전체적이고도 조화있는 교회의 프로그램들이기도 하다. 특별히 교회에 주어진 가르침의 사명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교회를 유지시키고 교회에 보다 나은 장래를 가져다 주는 중대한 사명중의 하나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나 초대교회의 집회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이다.

우리 총현교회도 이러한 교육적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에 일찍부터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천국일꾼을 키우자'로 정하였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교육위원회 산하 각 교회학교 부서가 이것을 위하여 전력하였다. 93년도를 마감하면서 간략하게나마 한 해 동안의 교회학교 교육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교육을 전망하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금년도 교육위원회는 행정 조직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3개 교육위원회로 나누어져 운영되던 산하 33개 교회학교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몇몇 부서(유치원, 경로대학, 조기교실 등)가 교육위원회에서 분리되

어 교육훈련원으로 이관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신설 운영되었던 세례부가 새가족부로 통합 운영되다가 새가족위원회로 승격되면서 교육위원회 소속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어예배부가 폐지되고, 청년 1·2·3부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교회학교는 24개 부서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체제를 정비한 교육위원회는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교회의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임명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1월 13 - 14일 이틀동안 일꾼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금년도 교회학교 교육방침이 하달되어졌고, 이 일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교사들은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의 재무장을 위하여 5월 17-19일까지 교사단기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정삼지 목사의 '소그룹 양육과 교회성장', 정일웅 목사의 '교사의 자질향상과 영성개발'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교사의 사명'이라는 주제의 강론이 있었다.

교회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본 교육위원회는 전국 교회학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회교육의 현실진단과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은 과거 한국교회의 교육을 되돌아 보면서 현재 교회학교 교육을 조명하고,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금년도 교육위원회 산하 24개 교회학교의 결실은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서 나타났다. 각 부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이미 총동원 행사를 실시하였고, 예수사랑 큰잔치의 날에는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의 학생들 중에 886명이 초청되어 457명이 등록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일선에서 사역하는 지도 교역자와 부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리라고 믿는다.

한 해 동안 교회학교 교육에 관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첫째로, 24개 교회학교 각 부서의 교육계획과 운영지침을 일목요연하게 모은 교회학교 교육요람(책자)을 제작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점이다.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본 교회 교회학교의 교육요람을 요구하였음에도 선뜻 내놓을 수 없었던 점은 지금도 교회교육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에는 전국교회 앞에 내놓을 만한 총현교회 교육요람이 반드시 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로, 교육위원회와는 별도로 조직된 교육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회학교 교육이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교회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교육과정과 행정조직, 교사양성 및 훈련과 수급계획, 부교재 개발, 적절한 시설 확충 등 연구과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일선에서 가르치는 지도교역자나 교사들에게 짐을 부여한 것 같은 인상이 든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금년도에 교회학교 부서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학기 중간에 몇몇 부서(초등 3부, 새가족부, 소망부)의 지도교역자가 바뀌고, 청년 1·2·3부가 통폐합되는 등 행정조직에 있어서 변화가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로,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한다면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상의 과업이요, 우리의 교회와 민족이 사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기에 조심스럽게 제언을 해본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금년도 24개 교회학교 각 부서를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름도 빛도 없이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한 각 부서의 지도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의 가르침의 사역을 통하여 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책임있는 천국 일꾼들이 배출될 것이고, 이러한 일꾼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국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교회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교육과정과 행정조직, 교사양성 및 훈련과 수급계획, 부교재 개발, 적절한 시설 확충 등 연구과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일선에서 가르치는 지도교역자나 교사들에게 짐을 부여한 것 같은 인상이 든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 93년을 보내면서 ◆

'새롭게 하소서'

오 회 승

(집사, 제3교구, 할렐루야 찬양대원)

희색빛 바람이 맴도는 끝에
무거운 오동잎들이 춤추며 곧두박질을 하는 나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첫교훈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 드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닌 그대로를 인정하는 일
어찌하는 그다지 마음에 닿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큰 실패였습니다.
교정될 수 없는 나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우리네들
생활의 변화만을 원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옵니다.
자기만을 너무 의식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 주님!

이제는 이 모든 일에 당신의 섭리를 기다리는 인내를
제게 요구하시오니 우리는 서로 작은 용기를 내어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아픈 마음을 잃지 않게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새상이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목자의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네들
늘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응시하는
우리 삶속에 그곳이 생각하고 여유를 두며
하나님 덕 밑에 의지하려 합니다.

쉽게 후회하고 안달안달하는 우리들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자애로움 속에서
참다운 크리스찬이 무엇인가를 반성할 우리들입니다.
늘 미소짓는 주님 아래 안기우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제 내 나이가 마흔을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
조용히 체험해 보고픈 시간입니다.

이 근사한 묵상은 날이면 날마다 내 생애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맘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갓난아이처럼 내 마음을 비우며
지금 이순간부터 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고되고 너무 아팠던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제 내 가슴을 헤집고

세상의 헛되고 부요한 것들에서 달아날 수 있었음을
거듭 거듭 주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비탈길을 오르락거려지며
기도하시던 내 어머니의 숨은 인내와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내 시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 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들을 위하여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시는
천상의 내 아버지를 그리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총현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함을 알 나입니다.

주의 특별한 사랑하심으로
내 가슴을 헤집고 찾아오신 내 주님께
거듭거듭 감사와 찬미를 올립니다.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브와나 아시프웨!

(Bwana Asifwe : 할렐루야와 같은 뜻의 스와힐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 케냐에서 첫인사를 드립니다. 케냐에 온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에 도착한 이후 전기도 없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마른 땅과 풀, 가시나무만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맛사이 랜드(Massai Land)에서 3개월을 지내고 현재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저에게 들려온 소식 중 총현교회의 파송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터인데 부족한 제가 그러한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부담스러웠으나, 그것은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지난 5개월간의 저의 생활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월 2일 한국을 출발하여 오랜 비행기 여행 끝에 6월 4일 케냐에 첫발을 디디며 이 땅을 다시 밟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으로 벅찼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며 이 곳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공용어로서 영어, 국어는 스와힐리어, 그리고 부족마다 사용하는 부족어가 있습니다. 나이로비(Nairobi)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변화한 곳으로 돈만 있으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외국인이 살기에는 말할 수 없이 편한 곳이지만 낮은 소득과 직업을 얻기 힘든 상황 때문에 현지인들은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과 상업들을 인도인에게 점령당한 이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지들, 도둑과 소매치기 Give me 1 shilling! (케냐의 화폐단위)를 외치는 수 많은 거리의 아이들, 이들을 보며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위하여 부족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을 품고 도착한 날 바로 저는 맛사이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넓은 맛사이 랜드의 여러 마을들 가운데 400여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 레레(Lele)라는 곳이었습니다. 레레는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로 2시간 30분 정도 달려야 하는데 이곳에서 3개월을 지내고 훈련 때문에 지금은 나이로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던 9월부터 약 1달동안 언어 실습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으로 매일 20명 이상을 만나야 했습니다. 마타투(Matatu, 케냐의 대중 교통의 하나)를 타고 시내로 나가 두 시간 이상을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야 했기에 땀은 너무 피곤하였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만지,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현지인의 어려움을 조금씩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전 마타투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비록 지갑과 약간의 돈을 잃어버렸지만 현지를 느낄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 소매치기를 세 번이나 더 만났습니다. 그러나 잃

어버린 물건은 없고 다만 마타투를 타는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겨 걱정입니다. 10월부터 저는 언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언어에 조금씩 진전이 있음을 볼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저는 2박 3일 동안 소말리아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선

교회에 소속된 네분의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교육과 구호 사역자로 일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지만 도저히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곳에 전쟁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복음을 듣게 할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생활하지 않고 부족사역을 할 경우 운전을 배울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지 않아 10월 5일부터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3일 어제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치렀습니다. 커다란 아프리카 시험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그의 질문을 잘 못알아 듣거나 대답을 제대로 못할까봐 무척 떨었으나 무사히 논리시험을 마치고 도로에서 하는 주행시험까지 무사히 마친 후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운전은 부족사역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케냐는 우기로 접어들었고 날씨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때때로 한국의 가족들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부족한 저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기쁨과 감사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총현의 가족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매끄럽지 못한 문장이지만 소식 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온 총현의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O 기도제목

1. 언어에 많은 진전이 있도록 (영어, 스와힐리어)
2. 건강을 잃지 않도록
3. 현지인들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4.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5. 사역과 사역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일꾼됨을 감사하며

고 은 벤 올린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7일(화), 8일(수) 군산지역 연합성회(군산 중앙장로교회)
· 신성종 목사님 : 10일(금) 국민일보 창간5주년 기념 예배 설교(여의도순복음 교회 대성전)
2.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3. 새가족들의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내려 주소서.
4.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십령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문이 열리게 하소서.
5. 선교사님들을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 장병 세례식을 마치고 ◆

위로와 확신으로 도와주며

임 성 환

(목사, 제23교구, 전도위원회, 사랑부 지도)

얼마전 군전도회 사무실로 한 청년이 찾아왔다. 어려운 군 생활중에 총현교회 군전도회(회장 김재병 장로)가 위문하고 기도해준 덕분에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러 온 것이다. 그때 그는 내가 제대만 하면 총현교회의 교인이 되겠다고 혼자서 다짐하였고, 제대한 후 처음 예배를 총현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으며, 여기서 신앙생활의 훈련을 잘 받아 훌륭한 한국 일꾼이 되었다고 굳게 다짐하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군전도회가 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눈 앞에서 이런 좋은 열매를 보게해 주신 하나님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군전도회는 군복음화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인 전도회다. 매달 모이는 군전도회 기도회에는 500명이 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년 20만명의 젊고 우수한 인력들로 이루어진 장병들이 우수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소서, 기독교 장병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의의 병기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소서, 60만 전 장병의 가슴을 신앙의 활판으로 무장시켜 주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다음 위문할 곳의 소개와 위문자들의 신청을 받아 준비한다. 어떤 때는 위문품도 초라하다. 빵 하나 이쿠르트 하나로 위문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분들은 그 정도 가지고 갈바야 차라리 돈으로 부치고 대포 몇발만 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위문품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엮어진 복음의 고를을 가지고 간다. 옛날과 모든 것이 다른 풍성한 군생활에 누가 위문품만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군인들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믿음의 식구, 그들의 기도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러 간다. '어떻게 거의 3년이나 되는 긴 군대생활을 할까? 3년이나 되는 세월에 나의 건강은? 그동안 나의 인생과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등의 문제로 긴장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함을 가진 자들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들십시오 하고 손을 잡아주면 그들의 눈동자는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군생활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노력하고 애쓰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된다.

사실 지금도 군을 향하여 여러 종파가 물량공세를 한다. 그러나 총현교회 군전도회는 기도하러 간다. 십자가의 정병을 만들기 위해 간다. 그래서 총현교회가 어느 부대를 방문한다고 소문만 나면 기도 많이하는 귀한 교회에서 온다고 벌써 마귀가 벌벌 떠는 소리가 들린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사명은 영혼구원이다.

이번에도 군전도회는 11월 24일 35사단 504명의 장병세례식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그날은 잔뜩 피땀 흘려 날씨가 더워졌을 때였다. 나는 당일의 날씨는 어떠할까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미 그곳에는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이었다. 참 난감했다. 인제나 일을 진행하는 실무진에서는 이미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하지만 미끄러운 도로 사정이라 아무래도 긴장이 되고 조심스럽다. 특히 70명이라는 많은 회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교역자 회의 시간에 모든 교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다. 은혜중에 모든 행사는 매진했다. 젊은이들에 뿌문을 끓고 눈물을 흘리며 세례 받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수가 없었다. 저들이 바로 민족의 희망, 국가의 희망, 가정의 희망이다. 저 젊은 군인들을 구원하여 십자가의 정병으로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총현의 군전도회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전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기를 바라며, 교구의 일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504명의 세례를 집례하며 봉사에 주신 두분 목사님(정경철, 한용환)과 군전도회 식구들에게 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